

# 광주FC 허율·엄지성, 팀 우승·영플레이어상 모두 노린다



허율

### 둘다 금호고 출신 젊은 피... 팀 선두 이끌며 나란히 6골 K리그2 후보 중 최다골로 '집안 싸움' 예고... 수상 유력

광주FC의 허율과 엄지성이 팀의 우승과 영플레이어상을 동시에 노린다. 광주는 지난 7월 30일 2위 대전하나시티즌과의 30라운드 경기에서 짜릿한 1-0 승리를 거두면서 '조기 우승'을 위한 걸음을 재촉했다. 이날 승리로 17승 7무 3패(승점 58)를 기록한 광주는 대전(승점 44)을 4위로 밀어내고 1위 독주를 이어갔다. 부천FC가 승점 47로 2위로 올라섰고, FC안양이 승점 45로 그 뒤를 쫓고 있다. 광주의 거침 없는 질주에는 금호고 출신의 '젊은 피' 허율과 엄지성이 있다. 193cm 장신 공격수인 허율은 프로 2년 차였던 지난해 기다렸던 데뷔전을 치르면서 광주의 제공권 싸움에 힘을 더했다. 장신이지만 빠른 스피드와 발재간을 갖춘 허율은 지난해 18경기에 나와 2골을 기록했고, K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는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3경기에 나와 3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는 등 올 시즌 6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엄지성은 지난 시즌 리그의 이목을 끈 '셋별'이었다. 체격은 작지만 양발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엄지성은 시원한 슈팅과 남다른 스로잉 거리도 보여주면서 이내 엄원상과 광주의 미래로 떠올랐다. 엄원상이 울산현대로 떠난 올 시즌 엄지성은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37경기에 나와 4골 1도움을 기록했던 엄지성은 올 시즌 21경기에서 6개의 골을 만들었다. 광주 이正道 감독은 두 신예 선수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격 옵션을 구성하면서 감독 데뷔 시즌, K리그2 우승을 위해 달리고 있다. 팀의 주축 선수로 뛰고 있는 두 사람은 개인 타이틀을 위한 '집안싸움'도 하고 있다. 30라운드가 종료된 현재 K리그2 영플레이어상

조건을 충족한 선수는 모두 26명이다. 광주에서는 허율, 엄지성과 함께 정호연이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후보는 허율과 엄지성이다. 허율과 엄지성은 나란히 6골을 터트리면서 영플레이어상 후보 중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다. 허율은 3개의 도움 포함 최다 공격 포인트 주인공 공이기도 하다. 또 4차례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고, 라운드 MVP 영예도 한 차례 차지했다. 엄지성도 4차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1월에는 처음 국가대표로도 발탁이 됐다. 엄지성은 1월 15일 아이슬란드와의 친선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에 나서 바로 데뷔골까지 장식하면서 남다른 스타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광주 미래들과 함께 안산그리너스의 최건주(FW)와 부천FC의 조현택(DF)이 영플레이어상 경쟁을 하고 있다. 최건주는 후보 중 최다 경기 출전(27경기), 최장 시간 출장(1945분) 중이고, 조현택은 4골 1도움을 올리며 베스트 11명단에 가장 많은 5차례 이름을 올렸다.



엄지성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캡틴 안영규·수문장 김경민 '베스트 11'

광주FC의 '캡틴' 안영규와 '수문장' 김경민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일 '하나원큐 K리그 2 2022' 30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대전하나시티즌과의 30라운드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이룬 광주에서는 안영규와 김경민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영규는 팀의 주장이자 수비의 핵심으로 2위 대전과의 결승전 같은 경기에서 선수들을 이끌며 승점 3점을 만들었다. 김경민은 여러 차례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면서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다. 김경민은 이날 경기 포함 12차례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정민기(안양)와 함께 '클린시트' 공동 1위다. 한편 30라운드 MVP는 안산그리너스의 티아고에게 돌아갔다. 티아고는 전남드래곤즈와의 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30라운드 베스트 팀은 서울이랜드다. 서울이랜드



안영규(왼쪽)와 김경민.

드는 김포FC를 3-0으로 꺾으면서 12경기 만에 무승 고리를 끊었다. 베스트 매치는 부천중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 대 경남FC 경기였다. 부천은 선제골을 내줬지만 김호남, 닐슨주니어, 송흥민의 연속골로 경남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세계선수권 은메달 수상혁 육상연맹 포상금 5000만원

'스마일 점퍼'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대한육상연맹(이하 연맹)은 3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포상금 수여식'을 열었다. 연맹 경기력향상금(포상) 규정에서 명시한 세계육상선수권 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2위에 오르면 5000만원, 3위는 2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상혁은 지난 7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뛰어, 2m37을 넘은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연맹은 규정에 따라 이상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 김도균 한국육상대표팀 수석도약 코치는 1250만원, 이광필 국군체육부대 감독은 1000만원, 이상혁을 발굴한 윤종형 대한육상연맹 사무국장은 250만원을 받았다. 이상혁은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 9월 8~9일 취리히에서 치르는 다이아몬드리그 최종전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이상혁이 3일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포상금 수여식에서 임대기 대한육상연맹 회장으로부터 포상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영암군민속씨름단, 시즌 세번째 단체전 우승

### 2022보은장사씨름대회 울주군청 4-3으로 꺾어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시즌 세번째 단체전 우승을 이뤘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3일 충북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2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 단체전 결승(팀 간 7전 4승제·개인 간 3전 2승제)에서 울주군청을 4-3으로 꺾었다. 이병하, 김진호, 최성환, 장성우, 허선행, 최정만, 오창목으로 구성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장흥대회와 지난달 평창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승리를 가져오면서 단체전 3관왕을 차지했다. 같은 날 열린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는 최성민(20·태안군청)이 주인공이 됐다. 최성민은 3일 결승에서 만난 서남군(27·수원특례시청)을 3-0으로 제압했다. 지난 2월 설날 대회와 3월 장흥장사 대회에서 백두급 정상에 오른 최성민은 시즌 3관왕을 이루면서, 개인 통산 4번째 장사 꽃가마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3일 충북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 남자부 단체전에서 우승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이 김기태 감독(뒷줄 오른쪽), 윤정수 코치(뒷줄 왼쪽) 및 동료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 프로농구 동아시아슈퍼리그 10월 '첫 스타트'

### 한국·일본·필리핀 등 8개 팀 참가 인삼공사 홈경기 시작 5개월 예정

동아시아슈퍼리그(EASL)가 2021-2022시즌 한국 프로농구 준우승팀 안양 KGC인삼공사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5달간 여정에 들어간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의 프로농구 리그를 아우르는 대회인 EASL은 3일 원년인 이번 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대회에는 10월부터 KBL·일본 B리그·필리핀 PBA의 필리핀컵 우승, 준우승팀과 홍콩에 기반을 둔 중화권팀 베이 에어리어 드래곤즈, 대만 P리그+ 우승팀까지 8개 팀이 참가한다. KBL에선 지난 시즌 창단 첫 통합우승을 달성

한 서울 SK와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을 차지한 인삼공사가 대표로 나선다. EASL은 8팀을 A, B조로 나눈 후,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각 팀당 조별리그 6경기를 치러 조 1, 2위 네 팀을 정한다. 이 네 팀이 4강, 결승, 3위 결정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삼공사는 B리그 준우승팀 류큐 골든 킹스, P리그+ 우승팀 타이베이 푸분 브레이브스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필리핀컵 우승팀과 A조에 편성됐다. 10월 12일 오후 7시에 인삼공사가 필리핀컵 우승팀을 홈인 안양 체육관에서 맞는 게 A조 첫 경기이자 대회의 시작이다. 10월 16일과 12월 7일 홈에서 타이베이, 류큐와 맞붙을 인삼공사는 남은 조별리그 3경기는 내

리 원정에서 치른다. 각각 12월 21일(류큐), 내년 1월 18일(타이베이), 2월 1일(필리핀컵 우승팀)에 예정돼 있다. 우쓰노미야 브레이크스(일본), 베이 에어리어, 필리핀컵 준우승팀과 함께 B조에 배정된 SK도 10월 19일 일본으로 건너가 B리그 우승팀 우쓰노미야와 맞붙으며 대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11월 2일, 12월 28일, 내년 1월 4일 우쓰노미야, 베이 에어리어, 필리핀컵 준우승팀과 연달아 세 차례 홈경기를 치른다. 내년 1월 18일, 2월 1일 각각 필리핀컵 준우승팀, 베이 에어리어와 남은 원정 2경기를 치르며 SK도 조별리그 일정을 마친다. 이후 내년 3월 3일부터 4강전을 진행하며 결승전이 열리는 그달 5일 모든 대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증장로관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한산: 용의 출현
2관	한산: 용의 출현
3관	한산: 용의 출현, 보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4관	비상선언
5관	비상선언
6관	비상선언, 미니언즈2
9관	미니언즈2, 헤어질 결심,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우주소전쟁 리틀스타워즈 2021
7관 씨네마	비상선언, 외계+인 1부,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8관 씨네마	탐정: 매버릭,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우주소전쟁 리틀스타워즈 2021

광주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  
일시 : 2022.08.23.(화)  
장소 : 북구문화센터  
문의 : 062-415-52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8.02.(화)~31.(수)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